

# 작년 청년실업률 9.2%... 향후 더 증가 전망

청년 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청년 인구가 줄어들어도 이들의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G경제연구소는 15일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 일본 장기침체기와 닮은 꼴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9.2%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2000년 이후 최대치다.

한국은 일본의 장기침체 진입 이후 10년 이상 청년 실업이 확대된 시기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10% 전후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던 일본의 당시 청년실업률은 4%에 불과했다.

## IG 연구원, 2000년 이후 최대치로 일본과 비슷한 흐름

하지만 1980년대 일본의 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면서 청년실업률은 2003년 10.1%까지 상승했다.

이 상황은 우리와 비슷하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20년까지 평균 2.5% 성장한 뒤 2020년에는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2013년까지 8%대를 유지했으나 경제침체와 맞물리면서 2014년 9.0%로 훌쩍 뛴 데 이어 지난해 9.2%까지 높아졌다.

일본은 IT를 중심의 세계경제 성장과 새 기술 적용 제조업의 해외 진출 등에 힘입

어 청년실업률을 낮췄다

반면 현재 세계 경제는 전통적인 서비스업 등 청년층에 비교 우위가 없는 산업이 주도하고 있어 우리 청년들에게 불리한 상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2014년 71%로 높아 학업 등의 이유로 실업을 피할 여력도 적은 상황이다. 일본의 대학진학률은 1980년대 30%에 불과했다.

2020년 청년인구가 감소하면서 실업률을 낮출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장래인구 전망치에 따르면 20~29세 인구는 2020년까지 현재 680만명을 유지할

뒤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감소한다. 일본에서도 2000년대 이후 청년인구가 매년 2.8% 줄었지만,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일본에서 장기침체 진입 이후 10년 이상 청년 실업이 확대됐던 점을 감안할 경우 우리의 성장 흐름이 계속 약화된다면 청년층의 고실업 문제는 앞으로 상당기간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류상운 책임연구원은 "가장 근본적인 청년 고용 대책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이라며 "청년 고용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시장의 경직성을 풀고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진수기자



## 기아차, 'K3 해치백·쿠페 모델 출시

기아차는 공간 활용성을 높인 5도어 해치백 모델 '더 뉴 K3 유로'와 7단 DCT를 통해 주행성을 강화한 2도어 쿠페 모델 '더 뉴 K3 쿵'을 18일 출시한다.

'더 뉴 K3 유로'는 전면부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기존보다 크게 디자인해 볼륨감을 실렸다. 측면부는 해치백 디자인(뒷좌석과 트렁크가 합쳐진 형태)으로 세단 모델과 대비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또 ▲상황에 따라 2열 공간을 최적화할 수 있는 6:4 분할 폴딩 시트 ▲러기지 룸의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러기지 넷' ▲운전자의 후측방 시야 시각 지역에서 오는 차량의 움직임을 파악해 차선 변경 시 도움을 주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 사양을 모두 기본으로 탑재했다.

'더 뉴 K3 유로'의 가격은 2154만원이다. '더 뉴 K3 쿵'은 감마 1.6 터보 GDI 엔진과 감마 1.6 GDI 엔진의 두 가지 가솔린 모델로 출시된다.

1.6 GDI 모델은 개선된 6단 변속기를 신규 적용하고 주행 모드 통합제어 시스템(DMS)을 기본화해 매끄러운 변속성을 높였다. 1.6 터보 GDI 모델은 204마력의 출력과 복합연비 12.4km/l을 달성했다.

'더 뉴 K3 쿵'의 판매가격은 1831만~2364만원이다. /인진수기자

## 한국 AI 걸음마 단계

### 세계 시장 연평균 14% 고성장 전망... 국내기업 24~64개 불과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AI시대, 한국의 현주소' 보고서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AI란 인간의 지각 추론 학습 능력 등을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동안 정체기에 빠져있던 AI는 최근 급속한 성능 향상을 보이며 미래의 산업혁명을 이끌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이 상용화된 상황에서 AI 기술은 금융 의료, 제조업 등 경제·산업은 물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세계 AI 시장 규모는 지난해 1270억 달러(195조8000억원)에서 내년 1650억 달러(195조9000억원)로 연평균 14%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투자 규모도 2010년 4500만 달러에서 2015년 3억100만 달러로 7배 가까이 늘었고, 투자 건수는 6건에서 54건으로 급증했다.

한국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엑소브레인(Extrain) 프

젝트'를 비롯해 향후 10년간 1070억 원을 AI 관련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지만 이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민간 부문의 AI 산업 기반 역시 약하다.

지난해 기준 국내 AI 관련 기업 수는 약 24~64개로 추정된다. 세계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수 대비 2.5~6.7%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밖에 AI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AI 관련 기술 특허 보유 수도 부족하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컨설팅실 연구위원은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AI 분야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AI 시장에 조기 진입하려면 전면적인 산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AI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인적 육성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AI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AI 관련 기술 특허 보유 수도 부족하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컨설팅실 연구위원은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AI 분야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AI 시장에 조기 진입하려면 전면적인 산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진수기자



## 흑돌도 승리할 수 있을까?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화문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이세돌-구글 알파고 대국 5국에서 이세돌 9단이 비록들을 놓고 있다.

## 정부, 올해 기초연구비중 39%로 확대

정부가 올해 국가과학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자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13~2017년)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부는 매년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5대 분야, 78개 추진과제에 대한 21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미래부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삶의 질 투자 확대 분야에서는 개선이 요구돼 올해 시행계획과 다음 해 정부 R&D 예산 투자방향에 반영해 보완하기로 했다.

올해는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국가전략

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자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는 기술 분야별·정책 유형별 중장기 투자 전략을 마련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중장기 창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R&D의 기초연구 비중을 올해 39%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도 18%까지 확대해 당초 2017년도 목표인 18%를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연구자 친화적 R&D 환경조성도 조성한다. 국가 R&D 사업에 관한 연구 서식과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공고 확장에서 과제신청까지 청구 단일화를 확대한다. /이성주기자

구독신청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